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고전시가 01강	찬기파랑가(10)	충담사	1
적용학습 고전시가 01강	제망매가(8)	월명사	5
적용학습 고전시가 02강	서경별곡(9)	작자 미상	7
적용학습 고전시가 03강	월곡답가(4)	정훈	11
적용학습 고전시가 04강	짚방석 내지 마라~(3)	한호	13
적용학습 고전시가 04강	청초 우거진 골에~(3)	임제	14
적용학습 고전시가 04강	곡구룡 우는 소리에~(3)	오경화	15
적용학습 고전시가 05강	사랑이 거짓말이~(3)	김상용	16
적용학습 고전시가 05강	임이 혜오시매~(0)	송시열	-
적용학습 고전시가 05강	남은 다 자는 밤에~(4)	송이	17
적용학습 고전시가 05강	어이 못 오더냐~(3)	작자 미상	19
적용학습 고전시가 06강	누항사(8)	박인로	20
적용학습 고전시가 07강	자도사(0)	조우인	-
적용학습 고전시가 08강	덴동 어미 화전가(6)	작자 미상	23
적용학습 고전시가 09강	유산가(11)	작자 미상	25
적용학습 고전시가 10강	본조 아리랑[아리랑 타령](9)	작자 미상	29
적용학습 고전시가 10강	신고산 타령(3)	작자 미상	33
적용학습 고전시가 11강	습수요(0)	이달	-
적용학습 고전시가 11강	산민(9)	김창협	35
적용학습 고전시가 12강	어부단가(10)	이현보	39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년 고1 11월 / 해설 1~2쪽)

(가)

장미꽃 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난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금붕어 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어.

이 열매는 지난해 시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만한 이야기가 비릇될 때 익은 것이어니.

작은 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네 가슴에 줄음 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銀)실, 은(銀)실,

아아 석류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 정지용, 「석류」 -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 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다)

열어 짓히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에
기량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들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져.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울 화반(花班)이어.

- 총답사, 「찬기파랑가」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모두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모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이 드러나 있다.

2. ㉠과 ㉡의 공통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조성한다.
- ② 시상 전개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 ③ 시적 화자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 ④ 시적 화자에게 과거의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 ⑤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보여준다.

3. <보기>의 ㉠~㉣와 관련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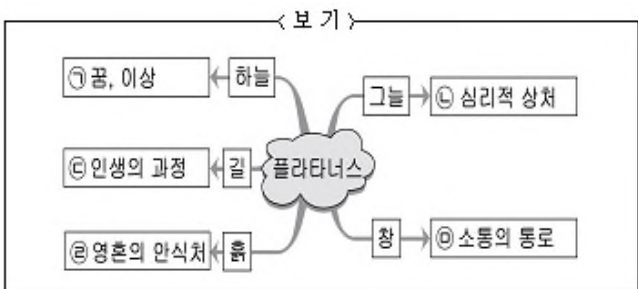
— < 보 기 > —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시를 형상화하는 능력은 정지용 특유의 것이다. 그는 대상에 대한 언어적 묘사를 통해 하나의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의 도입,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의 선택 등이 그의 이미지즘의 특징이다.

한편, 그는 생활 속의 일상어를 시의 언어로 사용한다. 그의 시에서는 ㉤상태와 동작을 한정하는 고유어로 된 부사를 활용하여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예가 자주 발견된다.

- ①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에서 '외롭게'와 '가볍게'를 나란히 놓아서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 ②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에서 '푸른 하늘'은 화자가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 ③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에서 '밤'의 시각적 심상이 '풀 사르는 냄새'의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 ④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시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 ⑤ ㉤:'여릿여릿한 느낌이어'의 '여릿여릿'은 석류알의 부드럽고 여린 감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4. (나)에서 '플라타너스'의 시적 의미를<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와<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풍상(風霜)이 셋거친 날에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다마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이오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의 시조

- ① (다)의 '갓가지-서리'는 <보기>의 '황국화-풍상'과 대응된다.
- ② (다)와<보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다)와<보기>의 화자는 모두 대상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 ④ (다)와<보기>에서 대상의 부재는 화자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⑤ (다)의 '화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보기>의 '님'은 원망(怨望)의 대상이다.

6. (다)의 화자와 유사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 ① 강호(江湖)애 병(病)이 깎피 뚝뚝(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팔백리(八百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 ②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셔, 듀야(晝夜)의 흘녀 내여 창희(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는다. 음애(陰崖)에 이운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 ③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희수(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양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애 저기면 놀리로드.
- ④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기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놉뚝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턴하(天下) 엇제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 ⑤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색(五色)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셋부니 희운(海雲)이 다 것논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홀 것티 두고 희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빅구(白鷗)야 늑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

[0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년 수능완성 / 해설 2~3쪽)

(가)

이분법적 구별법에 따르면, 구비 문학은 음성 언어로, 기록 문학은 문자 언어로 창작되고 유행되고 전승되는 문학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가 문학사에서 창작과 유행, 전승이 모두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민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역사적 갈래들은 기록 문학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러나 과거에 시가(詩歌) 작품들이 노래로 향유되었던 양상에 주목해 보면 구비 문학적 요소가 의외로 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신라 시대에 향유되었던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 문학이다. 문자로 기록되었으므로 당연히 기록 문학에 해당된다. 그런데 향가 작품들을 소개하는 『삼국유사』에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식의 서술이 곳곳에 보인다. 고려 때의 문헌인 『균여전』에는 듣고 외우고 읊조리는 방식으로 향유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창작 단계에서도 향찰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향가가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향유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도 있다. 충담사가 지었다는 「찬기과랑가」에 대해 동시대의 임금이었다는 경덕왕은 그 뜻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이상적인 인물에 대한 찬양의 뜻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래는 이처럼 궁중에 기거하는 임금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당대에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서, 향찰로 기록되고 전파되는 경로와는 별도로 음성 언어로 유행되고 전파되는 경로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시대의 문헌인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수록되기까지 전승되는 과정에서 약간씩의 변개가 있었을 것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궁중에서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군신들에 의해 음악으로 향유되었던 고려 속요는 그 뿌리가 대체로 민요에 있었다. 「서경별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 속요에는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적 생활과 감정이 선명하게 보이며, 유려한 율조의 사실, ㉡애정과 관련된 진솔한 감정 표현, 반복과 병렬에 의한 사실의 짜임새, 여음의 삼입, 분연체 형식 등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다소 비유기적으로 보이는 시상 전개는 민요 자체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궁중 음악으로 흘러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비적 부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고려 속요는 조선조에 이르러 한글이 창제되기까지 기다려져야 우리말 가사가 기록될 수 있었으므로, 이때까지는 명실상부하게 구비 문학이었던 것이다.

향가와 고려 속요는 이처럼 구비 문학으로서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가 향가나 고려 속요를 ‘시’ 대신에 ‘시가’라고 칭하면서 ‘노래’라는 표지를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사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같은 구비 문학이라 하더라도 구비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은 편차가 있다. 개인이 창작한 작품이 많은 향가는 구비 문학적 특성이 주로 유행의 국면에서 나타나지만, 대체로 민요에서 출발한 고려 속요는 창작과 유행, 전승의 모든 국면에서 구비 문학적 특성이 발

휘되는 것이다. 고려 속요 작품을 창작한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도 그만큼 구비 문학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향가나 고려 속요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비 문학적 특성들은 조선 시대에 광범위하게 향유된 시조에도 이어지면서 우리 시가사의 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나)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르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 냇가 자갈 벌에서

냥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갯이여

- 충담사, 「찬기과랑가」

* 일오: 지명으로 추정됨.

(다)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여히프론* 아즐가 여히프론 질삼비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긴히든 아즐가 긴히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즈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너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넬 빅에 아즐가 넬 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다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쇼성경 고외마른:** 작은 서울, 곧 서경을 사랑하지만.
 * **여히프른:** (임파) 이별하기보다는.
 * **피시란덕:** 사랑해 주신다면.
 * **림난디:** 바람난 줄, 음란한 줄.

7.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가는 창작과 향유, 전승이 모두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이원적 경로로 이루어졌다.
- ② 고려 속요는 대체로 민요로 출발하여 궁중으로 전파되어 간 구비 문학 갈래이다.
- ③ 고려 속요의 우리말 가사는 고려 시대 때 암송과 기억에 의존하여 향유되었다.
- ④ ‘시가’라는 용어에는 구비 문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 ⑤ 조선 시대의 시조는 구비 문학적 특성을 이어받은 갈래이다.

8.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향유 방식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궁중에서 임금이나 신하들이 소리로 듣고 외우고 읊조리는 방식으로 향유했겠군.
- ② (나)는 신라 시대에 향유될 때와 고려 시대에 이르러 문헌에 기록될 때의 노랫말이 다를 수 있겠군.
- ③ (다)를 군신들이 향유할 때는 남녀 간 애정에 대한 내용이 군신 관계의 도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했겠군.
- ④ (다)는 조선 시대에 들어 한글로 기록되면서 노랫말의 민요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기록 문학으로 탈바꿈했겠군.
- ⑤ (다)가 음악으로 연행될 때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여음이 현장의 정서적 감흥을 높이는 역할을 했겠군.

9. ㉠과 ㉡에 주목하여 (나)와 (다)에 대해 각각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서는 천상의 ‘달’을 지상의 ‘물’이 지닌 이미지에 대립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는 고매한 인물인 ‘냥’을 ‘눈’도 덮지 않을 만큼 높이 솟은 ‘갯나무 가지’에 빗대어 찬양한다.
- ③ (다)의 1연에서는 ‘질삼뽕(길쌈뽕)’을 화자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환경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고자 한다.
- ④ (다)의 2연에서는 ‘구슬’을 입에, ‘긴(끈)’을 자신에 빗대어, 이별 후에는 혼자 살아갈 화자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다.
- ⑤ (다)의 3연에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꽃(꽃)’에 빗대어 미화하여 표현한다.

10. ㉠과 관련된 <보기>의 설명을 참조할 때, (다)의 화자의 태도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서경별곡」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각 연마다 다소 달라 연 단위의 개별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 노래는 본래 다른 노래에 있던 노랫말을 합성하여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각각 다른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이별에 대응하는 인간 심리의 복합적인 운동 양상으로 보아, 한 편의 노래로서 완결성을 갖는다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 ① 1연에서는 임의 사랑을 못 미더워하다가, 2연에서는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이 지배적인 정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연은 서로 모순된 정서를 개별적으로 표현한다 하겠군.
- ② 1연에서는 떠나가는 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다가, 2연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면서 기적적인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연은 이별 직전과 이별 이후의 연속적인 정서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1연에서는 떠나가는 임을 따라가겠다는 애착을 보이다가, 3연에서는 이별 이후의 임에 대한 불신감을 표한다는 점에서, 두 연은 임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2연에서는 이별을 운명론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데 비해, 3연에서는 임에게 이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두 연은 서로 이질적인 정서를 개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군.
- ⑤ 2연에서는 이별 후에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가 나타나다가, 3연에서는 타인의 애정 파탄에 대한 연민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두 연은 서로 개별적인 정서를 표현한다 하겠군.

정답 및 해설

• 적용학습 고전시가 •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①
6	④	7	①	8	④	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①	19	⑤	20	①
21	⑤	22	②	23	⑤	24	①	25	④
26	⑤	27	②	28	①	29	③	30	⑤
31	④	32	④	33	②	34	①	35	①
36	⑤	37	②	38	⑤	39	②	40	③
41	⑤	42	⑤	43	①	44	①	45	②
46	③	47	④	48	③	49	④	50	②
51	⑤	52	⑤	53	⑤	54	③	55	④
56	⑤	57	②	58	①	59	④	60	④
61	③	62	⑤	63	②	64	⑤	65	④
66	⑤	67	②	68	④	69	①	70	④
71	④	72	③	73	①	74	⑤	75	③
76	②	77	②	78	②	79	③	80	①
81	③	82	④	83	②	84	③	85	⑤
86	②	87	⑤	88	④	89	④	90	③
91	⑤	92	⑤	93	④	94	①	95	⑤
96	③	97	②	98	③	99	④	100	④
101	⑤	102	⑤	103	②	104	④	105	④
106	③								

해설

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겨울 밤 화롯가에서 지난 가을에 익었던 석류 열매를 쪼개어 알맹이를 맛보며 느끼는 정감을 그려놓은 시이고, (나)는 ‘플라타너스’라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덕성을 예찬하며 삶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다)는 ‘기과랑’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기상을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찬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작품의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은 ③인데, (나)에서는 플라타너스의

꿈과 사랑을 아는 존재, 삶의 반력라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는 ‘조약돌’, ‘갯가지’ 등의 상징을 통해 대상의 높은 정신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 작품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
- ② 두 작품 모두 현실에 대한 풍자나 비판도 보이지 않는다.
- ④ (가)와 (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거리가 멀다.
- ⑤ 세 작품 모두 현실과 화자가 꿈꾸는 이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공통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석류 열매’를 쪼개어 먹는 화자는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한 옛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의 ‘조약돌’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인 기과랑의 정신적 표상을 상징한다. ‘조약돌’의 속성이나 형태로부터 ‘굳셈’이나 ‘원만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화자는 조약돌을 통해 기과랑이라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신비로움을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② 시상 전개에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석류를 먹는 행위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로 바뀌는 ㉠만 해당한다.
- ③ ㉠, ㉡ 모두 화자의 갈등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인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기>의 사실과 관련하여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이 슬픈 역사에 대해 고뇌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떠올린 옛 사랑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외롭게’와 ‘가볍게’를 병치시킴으로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 ③ ‘밤’이라는 시각적 심상에서 ‘풀 사르는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이끌어 낸 감각적 표현이므로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에 해당한다.
- ④ ‘흰고기의 손가락’은 석류알을 꺼내는 손가락을 비유함과

동시에 3연의 금봉어를 연상시키며 손가락은 금봉어의 지느러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흰 고기’에서 시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부드럽고 약한’의 의미인 ‘여릿여릿’을 활용하여 석류알의 촉감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시적 대상과 관련하여 제재의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그늘’은 플라타너스가 베푸는 ‘사랑’으로 파악해야 하며, ‘심리적 상처’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플라타너스’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제재의 시적 의미를 파악해 볼 때, ‘하늘’은 ‘플라타너스’가 지향하는 세계로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길’은 화자와 함께 걸어 온 ‘인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④ ㉢의 ‘흙’은 생명이 다하는 날의 ‘영혼의 안식처’로 파악할 수 있다.
- ⑤ ㉣의 ‘창’은 화자와 ‘플라타너스’가 이웃으로 ‘소통을 위한 통로’로 파악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를 통해 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다)에는 ‘기과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절개를 지키는 신하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이 나타나 있다. ‘서리’와 ‘풍상’은 모두 ‘시련, 역경’을 상징하며, ‘갓가지’와 ‘황국화’는 ‘푸른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갓가지-서리’의 관계는 ‘황국화-풍상’에 대응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 ③ 대상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두 작품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 ④ 대상의 부재 상황이 (다)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 ⑤ (다)에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기과랑’에 대한 그리움이 ‘~화반(花班)이여.’에 담겨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님(임금)’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볼 수는 없다.

6. [출제의도] 작품에서 파악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다)의 화자는 ‘기과랑’이라는 대상이 지닌 높은 정신적 경

지를 예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할 때 ④에서 ‘비로봉’을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빗대어 예찬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임금이 자신에게 관찰사의 소임을 내린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나타나 있다.
- ② ‘화룡소’를 통해 화자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
- ③ 화자의 풍류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자료들을 통해 향가가 음성 언어로 실현되고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이 문자 언어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작, 향유, 전승이 모두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고려 속요는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궁중에서 군신이 함께 향유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한글 창제 이전에 향유된 고려 속요의 우리말 가사는 당연히 암송과 기억에 의존해서 향유될 수밖에 없다.
- ④ (가)의 4문단에서 ‘시가’라는 명칭이 ‘노래’라는 표지를 강조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성 언어로 연행되는 구비 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용어이다.
- ⑤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시조에서도 구비 문학적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어도 이와 무관하게 구비 문학으로 향유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갈래의 특징, 성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 따르면 고려 속요는 창작과 연행·전승이 모두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구비 문학이다. 기록으로 정착되는 순간 노랫말의 민요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록 문학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 따르면 (나)는 임금이 높이 평가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고, 따라서 궁중에서도 연행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궁중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글을 읽는 방식으로 향가를 향유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향가의 연행 방식에 대한 『균여전』의 기록을 참고하면 듣고 외우고 읊조리는 향유 방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 ② (가)에 따르면 (나)는 구술로 연행되고 전파되다가 고려 시대에 이르러 문헌에 기록되었으며, 전승되는 동안 노랫말에 크고 작은 변개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 ③ (가)에 따르면 고려 속요는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민요

의 특성인 ‘애정과 관련된 진솔한 감정 표현’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고려 속요 작품 속 남녀 간 애정은 궁중에서 군신들에 의해 향유되는 과정에서 충성심 등의 군신 간 도리로 치환되어 이해되기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 ⑤ (가)에 따르면 고려 속요에 삽입된 여음은 민요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 속요가 음악으로 연행되는 현장에서 여음이 작품에 대한 감흥을 높이는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에 따르면 (나)는 높은 뜻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한 작품으로, ‘눈이라도 덮지 못할’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달’은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물가’는 기파랑의 모습을 찾는 공간으로, ‘달’과 ‘물’의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③ (다)의 ‘질삼뵈’는 입과 함께하기 위해 화자가 희생시키는 대상이다. ‘질삼뵈’가 입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환경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다)의 2연은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입을 향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녀신들’의 선어말 어미 ‘-시-’에 주목하면 천년을 혼자 살아가는 것은 화자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화자는 입이 대동강을 건너가 ‘건너편 곳’을 꺾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는 떠난 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10.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1연에서는 입을 따라가겠다고 할 정도의 애착이, 3연에서는 입이 강을 건넌 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입에 대한 애착과 불안감은 양면적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연에서 입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2연에서는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입과 화자 사이의 신뢰에 대한 믿음이 지배적인 정서이다.
- ② 1연에서 떠나는 입을 따라나서겠다고 했지 그를 만류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2연에서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예감이나 재회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⑤ 2연은 이별에 대한 운명론적인 수용이 아니라 영원한 신뢰가 주되게 나타난다. 입을 기다리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3연에서는 입이 강을 건넌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은 나타나 있어도 이별에 대한 책임을 입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사공에게 건네는 말에는 연민의 정서가 아니라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다.

